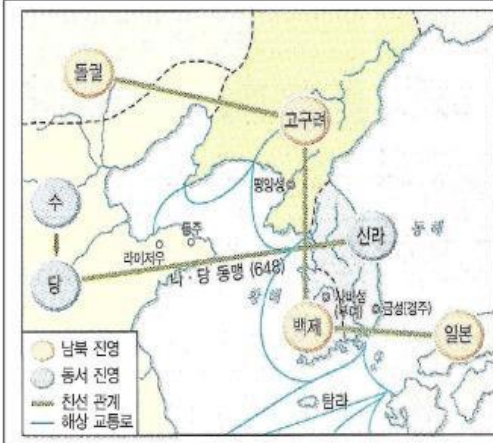


I.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

주제 6) 삼국의 통일과정

학	교	
학	번	
성	명	

1.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



㉠ 남북세력

- () : 통일된 중국세력과 대립, 신라와 대립
- () : 나제동맹이 결렬된 이후 신라와 적대시
- () : 당시 통일된 중국세력과 대립
- () : 일찍부터 백제와 친교를 맺은 상태

㉡ 동서세력

- () : 고구려, 백제에 연합세력에 의해 압박
- 수, 당나라 : 고구려 세력과 대립하고 있었으며, 한반도를 차지할 야욕을 가진

2. 고구려의 수당항쟁~삼국의 통일과정까지의 주요 사건

1)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



- ①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와 충돌
- ②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의 요서지방을 공격
- ③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수나라가 문제 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실패
- ④ 수문제의 뒤를 이은 수양제가 113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
 -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수나라 군대가 침공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착
 - 이에 수양제는 별동대 30만을 평양성으로 보내 공격
- ⑤ ()이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을 오늘날의 청천강 유역에서 물리침()
- ⑥ 이후에도 수나라는 고구려를 계속해서 침입했으나 실패하였고 지나친 국력소모로 결국 멸망

2)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



- ① 당나라는 건국된 뒤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선을 유지
- ②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 고구려에 대한 정복 야욕을 보였고 이 무렵 고구려에서는 ()이 정변을 통해 권력 장악
 - 당나라의 침입의도가 나타나자 고구려는 부여성~비사성에 이르는 ()축조
 - 당나라는 ()이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이를 구실로 고구려를 침공함.
- ③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으나 ()에서 고구려가 당나라 군대를 격퇴하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냄

3)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

- ① 백제의 의자왕이 왕이 된 이후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신라가 위기에 처하게 됨
- ② 이에 신라는 ()와의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()의 반대로 실패
- ③ 이후 신라의 ()는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데 성공()
⇒ 내용: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신라와 당나라의 국경선을 ()으로 정하여 이남은 신라가,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함

4) 나당연합군의 백제침공

- ① 의자왕이 점차 실정을 거듭하며 백제의 국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
- ② 이에 ()은 5천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방어에 나섰으나, 신라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()
- ③ 이후 백제는 수도인 사비성을 빼앗겼고(660), 당나라는 의자왕을 포함한 많은 인질을 잡아 돌아갔으며, 옛 백제의 땅에 ()를 설치하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보임

5) 백제의 부흥운동



① 부흥운동 전개

- ㉠ () : 흑치상지
- ㉡ () : 복신, 도침, 풍

- ② () : 백제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백제군과 일본군의 연합합대가 나당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

- ③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침공과 부흥운동 세력의 내부분열로 인하여 실패

6)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침공

- ① 수나라와 당나라의 잇단 침입으로 국력이 쇠퇴한 고구려는 ()이 죽은 뒤 후계자 다툼이 나타남
- ② 이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에 대한 감행하면서 고구려가 멸망(668)
- ③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는 고구려의 수도에 ()를 설치함
- ④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나 지도층의 내분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함.

7) 나당전쟁

- ① 원인
 - ㉠ 당나라의 나당동맹의 결정 사항 미준수
 - ㉡ (), 계림도독부, ()를 설치하여 한반도 지배 의도 보임
- ②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항전
 - ㉠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당나라에 맞설 군사력을 확보
⇒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던 ()을 보덕국 (수도 : 금마저)의 왕으로 인정
 - ㉡ 옛 백제 지역을 공격하여 웅진도독부를 탈환하고 소부리주 설치
 - ㉢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격퇴 : (), ()



현재 경기
도 연천 지역으로, 당의
20만 대군을 대파하여
전쟁의 주도권 장악

현재 충남
서천의 금강 하류 지역
으로, 서해안으로 침공
하였던 당의 수군 격파